

중장년 노후 필요자금은 月 279만원

중소기업협력센터

현재 중장년들은 은퇴이후 노후 생활비로 월 279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69.4세 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12일 채용정보 검색사이트 '잡서치'와 공동으로 40세이상 중장년 11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중장년 은퇴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은퇴이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월 279만원(200~300만원 미만 36.4%, 300~400만원 미만 35.7%)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중장년의 평균 최종연봉

안정적 노후생활 위해 69.4세까지 일하기 희망

중장년 구직자 44%는 1년 이상 장기 실업상태

은 6490만원(월 540만원)으로 최종연봉의 약 절반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들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69.4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6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년제 운영기업의 평균정년 60.3세 보다 9년 이상 더 경제활동을 원하는 것이다.

중장년들은 은퇴이후 경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재취업(59.1%)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국민

연금 등 정부의 공적 지원(21.5%), 창업(11.4%), 귀농귀촌(7.0%) 순으로 응답했다.

은퇴 이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라고 답한 사람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운동 및 건강관리(22.5%), 전일생활(13.1%), 경제활동(11.1%), 봉사 및 종교활동(10.8%)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답한 중장년 구직자 655명 중 43.5%는 퇴직 후 1년 이상(2년 이상 26.7%, 1년~2년 16.8%) 구직활동 중으로 장기 실

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 6개월~1년은 19.1%, 3개월~6개월 16.2%, 3개월 미만 9.2%, 1개월 미만 9.0% 순으로 조사됐다.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은 "중장년 상당수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노후준비는 부족하고 건강은 양호해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해 현실"이라며 "연령에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구축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진경원은 산하 중장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중장년 채용기업 발굴과 적합한재 매칭에 힘써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광주·전남중기청, 'R&D지원' 전도사

R&D 성공 우수사례 전파 및 사업화 제고 방안 논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지난 11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 3층 나눔공간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주)세기환경, (주)엘앤에스 등 R&D 수행 우수 지원기관 및 수행기업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개발 제품 사업화에 도움을 받았던 기업의 성공 사례 및 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제품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60여대의 고가 연구장비를 지역 중소기업에게 활용도

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치과용 인플란트를 연구개발하는 (주)케이제이메디텍은 20차례 연구장비 이용으로 전년대비 10억 이상의 매출 증대와 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LED 조명제품 개발업체인 (주)이노셀코리아는 8개의 품질인증 획득과 9명의 고용창출 및 해당 제품을 통해 약 2억원의 매출 증대를 이루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김진형 청장은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지원정책을 더욱더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오늘을 계기로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활발히 전파되어 광주·전남 지역에 보다 많은 우수기업이 배출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풍성'

중진공 광주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진공 광주본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2017년 수출마케팅 통합지원 사업과 해외바이어 개발·초청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출마케팅 통합지원 사업'은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부) 무역관을 활용한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과 중진공의 해외 민간네트워크와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한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

세일즈출장 지원 사업'으로 각각 구성됐다.

사업 참여 모집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수출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 규모가 2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기업이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세부사업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시장조사 대행사업'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한다. 해외 지사화는 1개사 당 1개 지역만 신청할 수 있으며, 확장·발전단계 선정 기업에만 지원이 이뤄진다.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사업'은 해외바이어와 상담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 시 출장 왕복항공료 일부를 지원한다.

다시 가열되는 프리미엄폰 승부

8월 '갤노트8' vs 9월 '아이폰8'



갤럭시 노트8 컨셉 이미지 (출처=폰이레나)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8은 8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8은 빅스비 버튼,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등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8플러스와 비슷한 외형을 구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 화면 크기는 6.3인치로 전작인 갤럭시노트7보다 0.6인치, 갤럭시S8플러스보다는 0.1인치 커진다. 4K OLED 패널이 적용되며 화면 비율은 18.5대 9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8보다 한달 늦게 출시 예정인 애플 아이폰8은 이번에 듀얼카메라에 3D 센서까지 추가된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3D 안면인식 센서가 탑재되는 것은 아이폰8이 처음이다.

또 애플은 테두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 베젤리스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갤럭시S8시리즈, LG전자 G6로 베젤리스 화면을 도입한 삼성과 LG는 차기작에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애플은 아이폰8을 9월에 공개하고 10~11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아이폰의 출하량을 940만대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5월 광주·전남 금융기관 수신 감소·여신 증가

지난 5월 광주와 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여신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5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신은 전월대비 3229억원이 감소했다. 예금은행은 기업사유예금의 감소폭이 컸고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등의 유입세가 둔화되면서 53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신학회사

를 중심으로 3761억원이 감소했다.

5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신 증가규모는 전월 4193억원에서 356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증가세는 유지했다.

예금은행은 가계대출이 소폭 확대된 반면 결제성자금의 상황 등으로 기업대출이 줄어들면서 증가규모가 150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축소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2692억원에서 3522억원으로 확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